

'영모정' 국가문화유산 지정 총력

진안군, 승격 위한 학술대회 개최... 학술적·역사적·건축학적 가치 재조명

진안군이 주최하고 전주비전대학교가 주관하는 '진안 영모정 국가문화유산(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가 27일 관계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 문화의 집에서 열렸다.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에 위치한 영모정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로 1984년 4월 1일에 지정되었으나, 학술대회를 통해 영모정의 학술적·역사적·건축학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함이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전주비전대학교가 주관하는 '진안 영모정 국가문화유산(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가 27일 관계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 문화의 집에서 열렸다.

김지성 교수(전주비전대학교)의 사회로 총 4가지의 주제 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1은 신성일 이사장(사단법인 김)의 진안 영모정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발표와 우덕희 원장(진안 문화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2는 박용신 교수(전주비전대학교)의 진안 영모정 건축학적·학술문화적 성격에 대한 발표와 이동희 교수(전 전주역사박물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3은 심정민 교수(전주비전대학교)의 진안 영모정의 문화재 보호 구역 재설정에 대한 발표와 김진 실장(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책연구원)의 토론, 주제 4는 남해경 교수(전북대학교)의 진안 영모정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문승현 부장(문화유산 국민신탁)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주대학교 홍성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덕희 원장, 이동희 교수, 이재재(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진안군은 그동안 영모정의 보수정비 추진 상황과 보물 지정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 성과도 이날 소개됐다.

영모정은 정면 4칸의 팔작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너와를 사용하고 누각 아래 사면의 각 기둥은 거북머리 모양의 일형초석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영모정은 효자 신의려의 효행을 기리고 분반기 위해서 세워진 정자로 신의려는 천성이 효성스러워 어릴 때부터 병든 아버지를 모셨으며, 임진왜란 때에도 병든 아버지 곁에서 간호하고 있었는데 왜적이 쳐들어와 아버지를 죽이려하자 몸으로 막고 울면서 병든 노친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효성에 감동한 왜적이 신의려의 이

름을 물은 뒤 그 이름을 종이에 써서 태우니 종이 타지 않고 하늘로 날아 올랐다. 놀란 왜적이 동네 어귀에 '효자가 사는 곳'이라는 방을 세워 왜적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이곳으로 피난하여 살아 남은 사람이 5만 명에 달했으며, 동네 이름을 오만동(五萬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전춘성 군수는 "높은 산, 깊은 물과 조화로운 누정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진안의 영모정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건축학적·학술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반드시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앞장

무주군민들, 서식지 환경정화·친환경농업 실천 등 나서

자연특례시 무주군은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성공적 개최와 반딧불이 개체 확산을 위해 서식 환경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실천면과 무주읍 등 반딧불이 서식지 인근 주민들이 직접 나서 탐사지 앞대 하천과 도로변을 정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초에도 후도 등 6개 마을 1백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했다.

무주읍 무주읍 후도마을 정명임 이장은 "4년 전 용담댐 방류 때문에 반딧불이 서식지가 훼손됐었는데 지금은 무주군과 마을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이 복원된 모습"이라며 "환경지표 곤충이자 무주군의 상징인 반딧불이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고장도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반딧불이 서식지를 지키고 가꾸는 데 모두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국내 유일의 반딧불이(천연기념물) 보호지역(3곳)과 다발생 지역(4곳)에 대한 서식 환경을 관리해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방침으로, 서식지 보호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서식지 일대 잡목 제거와 예초 작업 등의 정기적인 환경정화, 그리고 종별 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5~9월)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도 방사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반딧불이의 고장다운 면모를 지키고 또 가꾸기 위해 주민들은 환경정화며 친환경농업 활용 등 실천에 앞장서고 행정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며 함께 가고 있다"며 "올해는 무주방문의 해이기도 해서 반딧불 축제를 비롯한 상시 진행(6~9월)할 연기념물 보호지역(3곳)과 다발생 지역(4곳)에 대한 서식 환경을 관리해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자연재해 대비 현장 행정 '집중'

황인홍 무주군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등 점검 나서

무주군은 산불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에는 황인홍 군수가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내 인명피해(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황 군수 일행은 실천면 수한지구와 내립지구, 무주읍 왕정지구 등을 찾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상이변 때문에 자연재해 역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라 상시 점검과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생 시 철저한 사전통제, 그리고 주민대피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 '경로당 보조금 사용, 어렵지 않아요!' 역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중 하나"라며 "본격적인 농사철, 입산철이어서 우려되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현장점검은 물론, 주민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산불'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도 29일까지 병행한다. 봄꽃축제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등 봄철 나들이객이 몰리는 행락지를 찾아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 산불상황실 운영과 산불 장비 상황을 비롯해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근무 상황, 그리고 무주국유림관리소와 무주소방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도 점검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역사맛집' 장수 역사·문화 자원 논의

최훈식 장수군수, 김울림 국립익산박물관장과 소통 나서

최훈식 군수는 지난 25일 장수를 찾은 김울림 국립익산박물관 관장과 만나 지역을 소개하고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장수군은 최근 들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집중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촌리 고분군과 침령산성이 국가유산 사적에 지정되는 한편 고대사 회 국가 방어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등 '역사맛집'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어 장수역사전시관을 찾은 김 관장은 전시 시설을 둘러보고, 현재 진행 중인 춘송리 고분군 발굴조사와 관련해 완료 시 고분군의 가치와 역사성을 알아보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도 논의했다.

김울림 관장은 "장수군이 역사·문화 자원과 관련해 활발한 발굴 소식을



들려주고 있고, 최근 개관한 장수역사전시관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의 역사문화가 올바르게 평가돼 재조명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의 역사가 올바르게 평가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사의 재정립 과정을 섬세하게 진행해 장수군민을 비롯한 모든 이에게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실천면, 경로당 보조금

찾아가는 회계 교육 실시

무주군 실천면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내 경로당 45곳 임원진을 대상으로 '경로당 보조금, 찾아가는 회계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월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교육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보조금 사용(집행)기준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남용사례, △정산 시 유의 사항 등 보조금 회계 방법을 상세히 공유한다.

무주군 실천면에 따르면 기존에 1회성 집합 교육으로 진행하던 것을 경로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 '경로당 보조금 사용, 어렵지 않아요!' 역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